

종합·해설

“지역구 국회의원 예산 확보 0원” 파문

김중식 광주 서구청장, 통장 워크숍서 원색 비난

“조영택 의원 77억·이정현 의원은 27억 가져와”

김중식 광주 서구청장이 공개 석상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저조한 예산 확보 실적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시 서구는 지난 16일 오후 서구 마북동 한 웨딩홀 대연장에서 통장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장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통장 뿐만 아니라 김 청장과 서구의원 3명도 참석했다.

김 청장은 이날 워크숍 프로그램 중 하나인 ‘민선 5기 구정 방향에 대한 설명회’에서 통장들에게 국회의원과 청장 모두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후 “지난 3년 간 민주당 조영택 국회의원은 77억원을, 최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27억원의 예산을 지역 발전을 위해 확보한 데 비해 지역구 국회의원은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최근 구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해당 국회의원을 언급하며 “서구를 위해 확보한 예산이 ‘뺑언’이다”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 청장의 언급이 서구들이 지역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

다.

하지만 이처럼 김 청장이 현직 국회의원들의 예산확보 실적을 사실상 일일이 나열하며 비교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크숍에 참석한 서구 통장은 “김 청장이 긍정적인 취지로 말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했을 것”이

라면서 “다소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청장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많은 예산을 가져다 준다면 구청 입장에서는 좋을 수 밖에 없다”면서 “예산이 부족해 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 노력해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특정 국회의원을 비난하

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 측은 김 청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며 “어떤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김 청장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3년간 김 의원이 서구로 가져온 국비사업비로 수십억 원이 이른다”며 “서구 선거구가 갑과 을로 나뉘어진 점을 이용해 김 청장이 국회의원들 간 이간질을 하는 것으로 보이 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장의투쟁중인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8일 여의도역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안 날치기 통과와 정부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민생현장 중심 정책투쟁

박지원 “국회정상화, 대통령·의장에 달렸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반발해 지난 14일부터 이어온 전국 순회 장외투쟁을 28일 서울 집회를 끝으로 일단락 짓고 민생현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투쟁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시·도별 대규모 장외집회로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과 정부여당의 난맥상을 알려 ‘정권 심판론’을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시·군·구 단위의 자진방식 홍보전 및 각종 현안과 관련한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대안을 제시, ‘수권 정당’을 전파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손 대표는 당장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의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저소득층 아동들의 보육 실태를 살피고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 당 무상급식추진위는 이날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점검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구제역과 관련해서도 초동 대응에 실패한 정부 여당이 그 책임을 확산능가

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이 구제역 대책으로 제시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에 대한 대안을 오는 30일께 내놓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가축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대해선 “가축전염병 문제가 시급하다면 내년에는 원포인트 본회의의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민생 법안 40여개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본회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박지원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법안 날치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박희태 국회의장도 어떤 태도를 밝힐 것인가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는, 또 국회는 정상화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입장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두 분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당 분간 국회 본회의를 정상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태도는 민주당이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해 발목 잡기를 한다는 여당의 공세를 차단하며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전면 복귀한다는 인상을 줘 ‘2차 투쟁’을 앞두고 김이 빠지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정배 “MB 정권 확 죽여버리자” 비난에 靑·한나라 “패륜아”... 윤리위 제소

청와대는 28일 민주당 청정배 최고위원이 이명박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과 관련, ‘시정잡배, 패륜아’ 등을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지난 정부에서 법무장관까지 지낸 분이 시정잡배 같은 발언을 했는가 의심했다”며 “만약 그런 발언을 했다면 패륜아”라고 격양된 반응을 나타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으며 천 의원의 발언은 정치 도의를 벗어난 것”이라며 “천 의원 스스로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이명박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민주당 청정배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정육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많은 의원들이 오늘 회의에서 청정배 의원의 발언에 공분하고 개탄했다”며 “천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천 최고위원은 지난 26

일 경기도 수원역 앞에서 열린 ‘민주당 결의대회’에서 “이명박 정부를 소탕해야 하지 않겠나. 끌어내리자”, “헛소리하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명박 정권을 어떻게 해야 하나.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청정배 최고위원은 28일 “이명의 청와대 참모가 (내게) 폭언했다고 한다. 대꾸할 가치도 없지만 이명박 정권에 분노한 민심을 대변한 내 말이 들렸다나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를 과거로, 독재시대로 역주행하려는 이명박 정권이 내 말을 들었다면 반성하고 앞으로는 민심을 잘 헤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한나라당이 사과를 요구하자 성명을 내고 “내 발언은 이 정권에 분노한 민심을 대변한 것으로, 정권의 날치기 폭압을 규탄한 말”이라며 “한나라당이 이를 문제삼는 것은 제 발 저린 사람들의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휴대전화 활용 여론조사’ 홍준표 의원, 법개정 추진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28일 휴대전화를 활용한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내년 1월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 ‘정보통신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법)은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을 불식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노출을 엄격히 제약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도 각 여론조사기관은 자체 수집한 휴대전화 번호 등을 활용해 여론조사를 할 수 있지만 표본 수가 적어 조사결과와 대표성 및 신뢰성이 낮은 상황이며, 전화번호부 등재 유선전화는 활용한 현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정확도에 의구심이 제기된 상태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될 정보통신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인된 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이용자의 지역과 성별 등 제한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중앙선관위원장에 김효석 의원

**여성·노인·청년·대학생
위원장 선출 과정 총괄**

민주당 김효석 의원(담양·곡성·구례)이 28일 민주당 ‘전국 여성·노인·청년·대학생위원회 위원장’ 4명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당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공식 임명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당무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의 중앙선관위원장 임명과 향후 전국위원장 선출일정 및 방식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전국위원장을 당 대표가 임명해 왔으나 이번부터는 전국조직 활성화 및 그 기능 강화를 통한 당의 현대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

중앙당 선관위는 김효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박영선·오제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최인기 의원, 국회 제출**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은 28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의 원천 차단을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모든 사람의 신체 및 휴대품 등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축산형태가 외부와 완전 격리가 아닌 외부 접촉이 가능한 개방형이어서 구제역 발생국가를 다녀온 모든 사람에 대해 방역차원의 소독을 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이 다소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큰 만큼 가축전염병의 항구적 예방을 위해 국민적 인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티켓몽키에서는

매일 밤 11시, 광주의 모든 곳이 반값이 됩니다!

http://www.t-mong.co.kr
50%~90%

지금 티켓몽키에서는 **할인권 무료 증정**

티켓몽키 가입회원 모든 분들께
팝아티스트 키스해링 특별전
2,000원 할인권 무료!

언제까지? 2011년 1월 3일까지!
지금 바로 티켓몽키의 회원이 되어보세요.

티켓몽키 입점 문의 070-7581-7766

티켓몽키에서는 광주의 모든 곳을 50%로 줄기 수 있습니다.

NAVER 티켓몽키 를 검색해보세요.

活精源

6년근 홍삼 활정원

아직 저녁공복에 따뜻한 물만과 함께 드십시오!

어울림참살이티에서는 공진당, 우황청심환과 함께 중국황제에게 진상되던 3대 비약중 하나로 장기간이 전정약조전 속에서도 항상 건강유지했던 비결이라고 전해지는 경옥고를 업그레이드한 6년근 홍삼 활정원을 다문화 가족과 함께 정성껏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옥고는 동의보감에 4,000여종 이상의 처방 가운데 가장 첫번째로 수록된 제1처방으로, 양성연년약(養性延年藥, 건강하고 오래 살게하는 약)에 실려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나타난 효능을 보면 [경옥고]는 정(精)과 수(髓)를 채워주고 진기를 고르게 하며, 원기를 보하여 노인을 젊어지게 하고, 모든 허손증(虛損證)을 보하여 온갖 병을 낫게 한다고 합니다. 또 정신이 좋아지고 오장이 충실해지며 한머리가 다시 검어지고 빠진이가 다시 나오며, 걸음걸이가 뛰는 말과 같이 빨라 집니다. 하루에 두세번씩 먹으면 종일토록 배고프거나 목이 마르는 일이 없습니다.

| 차와 식사 | |
|-----------------|---------|
| 한 국 : 경옥고차, 동과차 | 일본 우동 |
| 인 도 : 짜이차 | 굴전, 누룬지 |
| 일 본 : 홍차 | 해물탕, 만두 |
| 중 국 : 찰차 | 삼색떡국 |

☎02676-8877 Fax.655-7009
주소: 광주시 남구 봉선동 999-1

농협 301-0062-9920-11 사) 어울림참살이티
운영자: 김인숙 - 목포과학대학 사회복지교수, 어울림다문화 센터장

2011년 시험대비 공인 공개사 시험

개강 1월 3일 (월) 상담접수중!

주간반·야간반·주말반

전남고시에서 수강하시면

1.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주·야수강가능)
2. 연회원 수강료 특별할인
3. 교재 무료 제공(12권 180,000원)
4. 동영상제공
5. 독서실, 사물함 무료이용

국비지원 수강가능!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 건너편 ☎222-5105

국비지원 교육생 모집 농산물품질관리사반

★웰빙(참살이)시대의 국가공인 유망자격증★

전국 최강의 전문강사진으로 대폭교체
취업의 꿈이 현실로 - 2013년부터
의무고용추진, FTA로 더욱 중요!

1월 3일(월)
대개강

주·야간반/주말반

1차시험
(5월29일)대비

*12월 말일까지 등록자
모두에게 청명딸기 1kg 증정

★농업인·축산인·임업인 특별혜택★

◆언제든지 청강 환영!

[서승철경영학박사, 김세미농학석사, 윤종하(전)공판원,
초대농식품시험위원, 손승운, 송상호, 전창훈교수진]

◆7·9급 농업직, 농촌지도사
18년 경력의 손승운 교수팀 직강

전농업전문학원

☎226-5050

위치: 전남여고 건너편(동부경찰서~전일빌딩) 학원가길, 광주고시역입구 건너편